여수 용기공원 박람회 주차장 재검토

부지 절반이 암반, 주차 공간 확보 어려워… 시민단체 예산 낭비 철회 주장

여수시가 내년 여수박람회 도심주차장 활용을 목적으로 조성계획 중인 용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용기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공원조성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에서 사업부지 53%가량에 암반이 분포돼 있어 계획대로 주차장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됐다.

용역업체 (주)한국종합기술은 학동 시청사 뒤편 임야 5만7060㎡를 허물고 42억원을 들여 암반 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850대 주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20억원 정도 예산을 더 늘릴 경우도 주차공간이 1300대에 불과해 시가 예측했던 2300대 주차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여수시민협 등은 성명을 통해 "용기공원 조성은 예산편성의 위법성, 도심녹지대 파괴 및 방풍효과 훼손, 도심교통 혼잡 가중, 사업효과 불투명(예산낭비), 통합청사 조성 우려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이라며 사업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시민단체들은 "교통연구원 용역 결과 환승 주차공간으로 용기공원과 웅천택지 개발지구 등 두 지역 모두가 위치상 죽림지구 환승주차장과 기능이 중복돼 환승주차장 활용이 곤란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사업 철회를 거듭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여수시청 정문 앞에서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김충석 여수시장은 지난 9일 간부회의에서 "사업 부지에 암반이 53%가 나와 최소 850대밖에 주차할 수 없다"며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같은 김 시장의 발언은 무엇보다 도심 내 주차장을 만들어 관람객들을 체류하게 함으로써 박람회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던 의도가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시장은 "내년 초까지 도심 주차장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박람회 개최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웅천 공원 예정지를 암반공원으로 조성해 주차장으로 활용한 뒤 공원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용기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김창화기자 mihang@

보성 해수풀장 인기

보성군 율포면 '해수풀장'을 찾은 가족단위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지하 120m에서 끌어올린 암반 해수를 이용하는 해수풀장은 드래곤 슬라이드·스페이스 볼 등 놀이시설도 함께 갖췄다. 〈보성군 제공〉

미래 발명왕 꿈 쑥쑥

곡성교육청 초중등생 대상 영재교육프로그램 호평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운)은 지난 9~13일 4박 5일간 순천대 컴퓨터교육과 창의발명디자인센터에서 '펀(Fun) 발명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에는 곡성영재원 재학생을 비롯해 로봇 및 발명분야 등에 관심 있는 초·중학생 35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대학 교수와 석사·박사급 멘토 등 총 18명의 지도를 받으며 창의적인 공익광고 만들기 등 첨단과학 기술의 기초와 원리를 습득하고 창작물을 만드는 능력을 배양했다.

캠프 마지막날인 13일에는 학부모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작물 발표회를 가졌다.

특히 과학과 수학, 전자원리 일상생활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도미노 게임 구현은 참여한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표현해 호평을 받았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여수역명 개정 논란 일단락

'여수엑스포역'으로 변경

여천역은 그대로 유지

역명 변경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여수역이 '여수엑스포역'으로 변경된다.

역명이 다섯 글자 이상일 경우 쓰게 되는 축약 역명은 '여수역'으로 정해졌다.

'여천'역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고 박람회 이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6일 제133회 임시회를 열고 화합적 차원서 표결없이 여수역명 최종 협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여수시는 기존 '여수역'은 '여수엑스포역'으로(축약명 엑스포역), '여천역'은 '여수역'으로 정해 시의회 승인을 요구했다.

'여수엑스포역'은 조만간 여수시와 철도공사간 업무협약이 체결로 공포될 예정이며 안내판 정비 등 후속사업 추진에 이어 다음달 30일부터 '여수엑스포역'의 명칭 사용이 공식 시작된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여수시 각종 기금 통합 운영키로

여수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기금을 통합 운영한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운용 중인 기금은 11종에 255억원으로 이중 여유자금은 205억원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들이 소규모로 각각 관리·운영돼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외 11종의 기금 가운데 고유목적 사업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토록 하는 조례 설치를 위한 입법을 예고, 오는 9월 6일까지 시민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에 들어갔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광양경찰 치안서비스 전남 경찰서 중 1위

광양경찰서(서장 박봉기)가 올 상반기 치안종합 성과평가에서 최상급인 S등급을 받아 전남 21개 경찰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성과평가 배점은 치안고객만족도 25%, 성과핵심지표 50%, 경찰서 자율치안시책부분 25%를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광양서는 성과 핵심지표 중 4대 범죄 검거율 2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교통사망사고 감소율 3위 ▲외사활동 종합평가 2위 ▲집회시위 관리평가 1위 등 성과지표에서 상위점수를 얻었다.

특히 경찰서의 자율 치안시책 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덕분에 종합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항 예인선 리베이트 비리 근절 '청렴서약'

광양항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인선 배정을 빌미로 해운선사 대리점이 예인선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기는 '예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인 3자가 손을 잡았다.

여수 지방해양항만청은 예선 리베이트 비리를 없애기위해 광양항에서 활동하는 해운선사-해운선사 대리점-예인선업체 등 3자가 최근 '청렴서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사 대리점 20여곳, 예선사 12곳 등이 활동하는 광양항에서는 그동안 선박 입출항시 예인선을 투입할때 선사 대리점이 예인선 배정을 해주는 대가로 해당 예선업체로부터 예인비 1건당 10~20%를 떼는 비리가 관행화 됐다.

여수항만청은 "관행적인 비리의 고리를 끊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예선시장을 만들기위해 청렴서약 체결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전 북

지자체 지정금고 지원받아 공짜 해외여행

'비리공무원' 무더기 적발

전북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정금고 및 법인카드사로부터 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기프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해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등 지원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2010년 3년간 전북도 등 도내 12개 기관에서 28명이 334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08년 1110만원(13명) ▲2009년 6명이 730만원(6명) ▲2010년 1500만원(9명)을 지원받아 각각 사이판과 호주, 홍콩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기관별로 도청 3명, 전주시 6명, 군산시 1명, 익산시 1명, 정읍시 3명, 남원시 2명, 김제시 1명, 완주군 3명, 장수군 1명, 임실군 2명, 고창군 3명, 부안군 2명이다. 이들은 법인카드 포인트를 적립규정(1%)보다 낮게 책정해주는 대신 부대 서비스로 공무원 해외 연수비를 지원받거나 '기프트카드'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에서 군산시와 김제시, 정읍시, 무주군 등 4개 기관은 '기프트 카드'를 지급받아 6회에 걸쳐 600만원을 부서회식비 등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은행금고(CGOUT) 약정을 맺을 때 받기로 약속한 협력 사업비 역시 전북도 2억9000만원, 무주군 1억3000만원등을 제때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적발됐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 17~19일 군산 새만금 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리는 '2011 전국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시험주행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20개팀(70개 대학)이 참가했다. 〈군산시 제공〉

"남원·부안도 특별재난구역으로"

전북 태풍·폭우 피해 2000억 넘어… 농수축산물만 940억

지난 8~9일 태풍 '무이파'와 집중호우에 따른 전북지역 피해액이 2000억 원을 넘어섰다.

피해액은 각 시·군의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오후 5시 현재 도내 14개 시·군 전체 피해액이 2천2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농작물과 수산·축산물이 940억 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고 ▲도로와 교량 등 공공시설 807억 원 ▲기업체 220억 원 ▲주택과 축사 등 사유시설 58억 원 등이다.

지역별로는 이틀 동안 400㎜의 비가 내린 정읍시가 39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임실군 98억 원 ▲고창군 78억 원 ▲남원시 74억 원 ▲부안군 71억 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5개 시·군의 피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50억~65억 원)을 넘겼다.

이에 따라 도는 큰 피해를 본 정읍과 임실, 고창 등 3개 시군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12일 행정안전부에 긴급 건의했으며 나머지 2개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을 요청키로 했다. 도의 이 같은 건의와 관련해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지난주 정읍과 임실, 고창에서 사전실사를 벌였으며 김황식 국무총리도 15일 정읍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재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응급복구율은 각각 98%, 90%다.

이에 따라 이번 주까지 공무원, 경찰, 군인, 자원봉사자 등이 각 지역에서 복구작업을 돕기로 했다고 도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스타 항공 군산~제주 등 동계 운행 예약 접수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은 올 겨울에 운행하는 모든 국내선 정기편의 예약접수를 받는다. 예약기간은 10월 30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로 ▲군산~제주 ▲김포~제주 ▲청주~제주 등 국내선 전 노선이다.

이번 예약 기간에는 크리스마스(12월 25일)와 2012년 신년(12월 31~1월 1일), 구정 연휴(1월 22~24), 밸런타인데이(2월 14일), 3·1절, 화이트데이(3월 14) 등 공휴일·기념일이 포함돼 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최대 4석까지만 예약할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지리산 허브 향에 빠져볼까

27일부터 남원 허브축제

방향(芳香)식물인 '허브'(hub)를 소재로 한 이색 축제가 남원 지리산 바래봉 기슭에서 열린다.

남원시는 오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동안 운봉읍 용산리 지리산 허브밸리 일원에서 '제4회 남원 허브축제'를 개최한다.

'지리산 허브! 자연의 속삭임' 이란 주제로 이번 축제는 지리산 친환경 허브경관과 더불어 5개분야 31개행사 등 양한 체험행사로 구성된다.

2만5000㎡ 규모의 허브밸리는 파인애플세이지, 가우라, 민트, 사루비아, 라벤더, 로즈메리, 메리 골드, 타임, 동국, 한련화 등 18종의 허브와 메밀이 지리산 경관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한다.

이번 축제는 27일 남원 시립국악단의 퓨전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 마술, 락과 통기타의 만남, 댄스파티 한마당, 아코디언 공연, 해외 민속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허브 홍보관, 허브체험장, 제품판매관, 허브식품 전시체험관, 허브건강 체험관 등이 운영된다.

이번 축제의 중심 프로그램인 '축제속 축제'는 축제 기간동안 허브 관련 테마를 가지고 보는 행사가 아닌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다.

오지탁 남원 허브축제추진위원장은 "다양하고 생생한 허브체험을 통해 관광객의 오감(五感)을 만족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뉴스 브리핑

전북대 내달 1일 고교생 음악경연대회 개최

전북대는 다음달 1일 '제10회 전국 고등학생 한국음악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관악, 성악, 타악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치러지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고교생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전북대 홈페이지(www.jbnu.ac.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26일까지 한국음악과(063-270-3716)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대상(전북대총장상)을 비롯해 금상·은상·동상·장려상이 주어지며, 파트별 3등까지 전북대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 세계철새축제 자원 봉사자 모집

군산시는 오는 11월 16~20일 열리는 '2011 군산 세계철새축제'에서 철새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담당할 자원봉사자(탐조투어 가이드 20명·통역 5명)를 모집한다.

특히 올해 자원봉사자는 예년에 선발하던 행사진행 인력은 선발하지 않고 적은 인원의 탐조투어 가이드를 선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지역 철새전문가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참가희망자는 군산시청과 철새조망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22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문의(063-453-7213)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남원시 이주여성 대상 한글지도 봉사단 창단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글을 지도하는 봉사단이 남원에 창단됐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3일 '한글지도 전문 자원봉사단'을 창단했다. 봉사단은 지난 7월부터 자비를 들여 '한글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 지도사 자격을 취득했다. 최상순 단장(중앙초 교사)은 "한글지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다문화가족과 아동들에게 한글과 우리문화 교육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한국스테비아, 가시없는 블랙베리 개발

한국스테비아㈜는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 육종팀과 함께 복분자의 일종인 블랙베리 신품종 '메이플'을 개발했다.

메이플은 원품종 '블랙 브이쓰리(V3)'에 감마선을 조사해 돌연변이 됐는데, 가시가 없고 품질·내병성이 뛰어나며 열매 당도가 높으면서 신맛은 적어 생식·가공용으로 적합하다.

메이플은 수확기간이 기존 블랙베리(10일)보다 길어 40~50일간 열매를 딸 수 있으며 과실도 5g 내외로 2~3배 크고 수확량도 3~4배 많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